



12월

성탄특집호

December, 2008



목차

- 내 삶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하나님의 은혜
- 김철홍 목사
- 내 삶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하나님의 은혜
- 친희석 집사
- 함께 나뉘요 (일상에서 나누는 나의 이야기)
- 유진숙
다비다회 회장
- 내 생애 가장 기억에 남는 하나님과의 시간
- 송강 청년



The Soullake

통 권 제 57 호 (8) - 0 6

2008년 12월 21일

내 삶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하나님의 은혜

1989년, Oregon에서 학생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날씨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데 새로 오신 이현찬 목사님께서 (지금 중국에 선교사로 나가 계시는데 우리 교회에도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어느 집회에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시애틀에서 열리는 집회입니다. 그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왜 하필이면 접니까?’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 때는 정말 성경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별로 없는 신앙의 초짜배기였기 때문입니다. 모태 교인들도 많고, 나보다 훨씬 신앙의 연륜이 있는 선배들도 많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집회에 보내시는 목사님이 이해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목사님이시고 어른이시기에 마음과 관계없이 ‘예’ 라고 대답하고 갔습니다.

시애틀에서의 집회 기간은 3일인데 기왕 올라가는데 그래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가야 하겠다고 생각이 들어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

인가?’ 도착해서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말씀과 찬양과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특별



김철홍 목사

히 섬기는 분들의 모습이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지만 전혀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그룹에 있었던 어떤 분은 저보다도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인데 기도하는 중에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 것도 나타나지도,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내심 초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멀리까지 와서 응답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면 언제 또 그런 기회가 오는가 고민하며 마지막 밤을 뒤척이며 보냈습니다.

사흘째, 새벽을 깨우는 종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모임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가서 보니 놀랍게도 세족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목사님이 내 발을 씻겨주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짙아졌습니다. ‘내가 무엇이관대



섬김을 받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섬김이 마음에 깊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리에 돌아와 다른 분들도 모두 마치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도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 다. 그러던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이런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네 생명을 구했다’ 그 순간이 제 생애 첫 번째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이었고 성령을 체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또한 5년 전, 예수님을 알고 믿기 전에 한국에서 들었던 어떤 말에 대한 분명한 답이기도 했습니다.

84년, 유학을 가기 위해 대학원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올 때였습니다. 친구들과 송별회를 하고 술이 취해 밤 12시 기차를 탔습니다. 자리가 없어 두 시간 정도를 간 다음 자리가 나서 앉았습니다. 앞자 말자 금방 잠이 들었는데 잠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 기차가 정지했다가 떠나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밖을 내다보는데 지금 정차했던 역이 바로 제가 내려야 하는 역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한 손에 가방을 들고 한 쪽 어깨에는 다른 가방을 메고 그냥 뛰어내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런 일도 없었겠지만 술로 인해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린다고 내렸습니다.

다행히 뛰어내렸을 때 굴러서 넘어진 곳이 바로 플랫폼 끝부분이었습니다. 아픈 감각도 없이 그냥 일어나서 집으로 가려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멀리서 호각소리가 나면서 역원이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미친놈으로 여겨져 그 분의 손에 끌려 사무실로 갔는데 무조건 죄송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와서 그냥 골아 떨어졌습니다. 다음날, 일어나보니 시계는 없어졌고, 입고 있는 옷은 군데군데 찢어졌습니다. 머리에는 혹이 나 있었고 손도 벗겨져서 흘린 피가 굳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온 몸이 옥신거리며 아픈 것을 그 때 느꼈습니다. 마침 스님이신 고모님이 오셔서 저의 모습을 보시더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너는 부처가 보호해서 살았다’ 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라는 절대자가 나를 보호한다는 그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던 얼마 후 미국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지만 생생한 체험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가대원으로, 구역장도 맡아서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의 기도제목과는 다른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을 듣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 가장 달라진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이 그렇게 좋았기에 기타를 사서 10여 년 만에 다시 기타를 치며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가기 전인 94년까지 학생 교회에서, 신학교에서 전도사로 교회를 섬길 때도, 그리고 이 교회에 와서도 찬양 인도자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신앙이 힘들어질 때는 그 때를 기억하고 찬양을 듣고 부릅니다. 그러면 다시 은혜가 회복이 됩니다. 매주 드리는 금요일 경배와 찬양을 사모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찬양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눈물을 흘립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 여전히 부족한 모습으로 인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눈물이 납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기에, 믿고 전하는 자이기에 행복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SL)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은혜를 멸시하느니라”

/ 잠언 1:7



내 삶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하나님의 은혜

By 친희석 집사

고등학교 2학년에 다니던 어느 날, 광화문에 있는 생명의 말씀사 옆을 지나가던 나는 우연히 중학교 동창을 만났고 그 친구와 함께 근처에 사는 다른 친구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3년 만에 만난 그 친구는 훌쩍 키가 컸고 얼굴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강한 기쁨의 빛이 역력했다. 무엇일까? 무엇이 내 친구를 변화시켰을까? 나는 강한 호기심이 생겼다.

잠시 후, 그 친구는 예수님에 대해 설명했고 변화된 친구에 나는 매료되어 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였다. 그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 채. 그 후 나는 단 한번 내 친구가 다녔던 내수동 교회를 갔었는데 그 이유가 아마도 어느 대학생 선생님의 설교를 그 당시 잘못 이해하여 강박한 마음에 그냥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의 심장을 이식 받은 나의 친구는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를 위해 기도를 해주고, 찬송가와 복음성가도 가르쳐주었으며,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과 네비게이토 출판사에서 나온 "주제별 성경 암송"도 주며 말씀을 소개하였다.

또한 나에게 편지도 여러 번 보내 주었는데 항상 다음과 같은 글로 시작되었다 -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나의 친구 희석이에게".

지금 생각하니 일종의 제자훈련을 그 친구에게 받은 것 같다. 약 3개월간을 함께하

던 그 친구와의 관계가 친구 집안의 신앙에 대한 박해와 감시로 끝나고 말았다. 그 후 많이 아프기까지 하던 친구가 보고 싶어 광화문 당주동에 있던 친구 집 앞을 무수히도 서성거렸다. 그렇게 그 친구와의 만남은 단절되었다.

3년 전에 한국에 나갈 일이 있어 그 친구가 다니던 고등학교에 전화를 하여 동창회장의 연락처를 받아 전화를 해보니 나에게 예수님을 전한 친구는 졸업동창명단에 없다고 하였다.

30여년 전에 전도하는 기쁨에 넘쳐 환히 웃으며 기도하던 중 내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영접하게 하였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 내 친구 이호종이는 "내 삶의 가장 기억에 남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속에 아직도 강렬하고 생생하게 살아있다.

친구 이호종이를 통해 내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드린다. 그리고 내 친구 호종이가 예수님의 사랑을 내게 전한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독특하고, 유별난, 알 수 없는, 그 오묘한 사랑을 살아 있는 동안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한다. (SL)

...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나의 친구 희석이에게."

지금 생각하니 일종의 제자훈련을 그 친구에게 받은 것 같다...





일상에서 나누는 나의 이야기

징글벨 징글벨... 어디를 가나 크리스마스 케롤송이 흘러나오는 걸 보니 한 해가 저물어 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

늘 그렇듯이, 한 해의 끝자락에 서게 되면 왠지 들뜨는 마음을 감출 수 없어 분주해 지고 그 동안 소원했던 친구들을 생각하며 성탄 카드를 준비하게 되며,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보낼 선물들을 고르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올 해는 사뭇 다름을 느낀다. 왠지 모르는 후회스러운 마음이 한 해를 뒤돌아 보게 하고, 이제 한 달 남짓 남은 올해를 보내는 마음이 조금해 지는 것을 숨길 수 없으니 말이다.

올 해는 내게 있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한 소중한 한 해였음이 분명하다.

다비다 여 선교회 회장으로 섬기면서 일년간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때마다 나의 모습은 어떠한 지 스스로 돌이켜 볼 겨를도 없이 앞만 보며 달려 온 한 해였던 것 같다. 누구보다도 부족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없었더라면 전혀 불가능 했을 것이다. 앞에서 일하다 보니 크고 작은 일에 힘들어 주저 앉게 되기도 했고, 다시 힘을 내어 일어서는 것을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일년이 다 지났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는 부족했던 나의 모습에 스스로 부끄럽기도 하고 후회스러운 마음까지도 들기도 한다.

올 한 해는 어느 해보다 교회 행사도 많았지만 모든 것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계셔 합당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셨으니 더욱 더 하나님께 감사 드리고 싶은 마음이다.

간략하게 다비다 여 선교회를 소개하자면, 결혼한 여성도들의 모임으로 구제와 선교가 가장 큰 목적이며, 교회의 전반적인 살림을 맡아 봉사하는 기관이다. 특히,

거리 봉사를 통하여 선교의 사명을 실천하고, 교회 공동체 식구들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하는 교제 봉사로 서로의 마음을 활짝 열어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말하고 싶다.

또한 다비다 자체의 독립 예산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회원 모두의 뜨거운 기도와 주님 주신 사랑의 실천을 기반으로 서로의 헌신과 봉사를 통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위한 안 살림을 감당하고 있다.

크고 작은 모든 행사에 너 나 할 것 없이 회원 모두가 정성을 다해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손길들을 대할 때 마다 감사한 마음과 자랑스러운 마음까지 들 때가 참으로 많았다.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님 가정에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모두가 한 목소리로 도움의 손길에 동참하고 세심한 것들도 배려한 집사님들의 모습과 시간에 쫓기며 생활하는 집사님들이 생업과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목사님의 가정을 사랑으로 섬기신 시간들은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 교회가 하나되어 주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의 실천으로 내게 다가와 참으로 가슴 벅차는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게 했다. 이렇듯 다비다 여 선교회는 교회의 어머니로, 기도의 어머니로 거듭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는 기관이 되고자 소망한다.

지난 1년 동안 다비다 여 선교회를 섬기면서 부족한 면도 많았고, 때로는 속상한 마음으로 힘든 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내게는 큰 축복이자 행복이며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감사할 뿐이다. 끝으로 부족한 저를 믿고 도와주시며 늘 격려를 해 주신 모든 집사님들과 묵은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으로 함께 일을 분담해 준 임원 집사님들께 감사와 주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SL)



유진숙 여선교회장

내 생애 가장 기억에 남는 하남교회의 시간

By 송강 청년



대한민국의 신체 건강
한 30세 이하 청년이라면 반드시 한 번은 현역으로 군대를 다녀와야 한다. 하지만 이런 속설들이 있다. “군대를 다녀오면 머리가 돌이 된다,” “나이 먹

어서 군대가면 어린 선임병들에게 갈굼당하는 것 완전 굴욕이다,” “군대가고 아주 길어야 1년 후엔 무조건 여자친구랑 헤어진다,” “군대 가서 배워오는 것은 단 두 가지뿐이다- 욕, 담배.”

요사이 제 주변에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이들이 많아, 보잘 것 없고 내세울 것도 없지만 위의 속설들을 보기 좋게 깨어버리고 은혜로만 가득했던 제 군복무 2년을 통해 “내 생애 가장 기억에 남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대학총교회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해보자면-

지난 13년간 유타대학총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은 많은 대학총교회 가족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손꼽히는 최대수혜자들 중 하나는 내가 아닌가 싶다. 누가 내게 “언제부터 교회 다니셨어요?” 물어보면, 뱃속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아, 태어나고 6개월 후부터 다녔어요.” 라는 어처구니 없었던 대답을 하며 자기 신앙의 뿌리조차 몰랐던 나를, 세상의 것을 좇으며 보이는 것에 최우선을 두며 살던 나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진정한 의미로 “살게” 해준 그 시작이 바로 대학총교회 이곳이다.

유타로 유학을 오자마자 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대학총교회에 발을 들이게 되고, 이

런저런 일들을 하기 시작한다. 찬양팀의 프로젝터 담당을 시작으로, 교회영상담당, 성가대, 홈페이지 관리, 그리고 청년부의 탄생과 함께 하기까지... 누가 들으면 자칭, “녀석, 믿음이 있구나!” 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아니올시다 혹은 전혀 아니삼, 아니셈 등으로 대답할 수 있겠다.

나는 믿음이 없었다. 교회에 오는 것은 단지 끌려왔던 것뿐이었다. 마침 금요일 저녁에, 혹은 일요일 아침에 약속이 없었고, 약속이 있으면 자주 빼먹기도 했다. 이전에는 알지도 못했던 유타 땅에 왔으니 사람들을 알아두어야 했다. 100% 와닿지 않는 나의 두번째 언어 친구들보단 보다 가까운 한인들을 만남으로 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았었을까? 하지만, 초등학교 이후 10년 이상 단절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크신 사랑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회복 되어갔고, 이는 내가 군입대를 하면서 절정에 이르렀다.

남들도 다들 가기 싫어하는 군대, 난들 오죽했으랴. 그러나 벌써 머리는 뽀뽀 밀고 난 후, 어찌 할 수가 있었을까. 기도했다, “저 2년 동안 하나님 일을 위해, 하나님 더 알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칠게요. 하나님, 죄로 가득하지만 못난 이 몸 써주세요, 그리고 2년 동안 나 책임지세요.” 정말 어리지만 정말 간절했던 내 간구에 대해 하나님은 24개월 동안 일본일초도 쉬지 않고 내게 응답 해주셨고, 불가능했던 놀라운 일들을 내게 보여주셨음을 조심스레 고백한다.

정말 몇 번 더 태어나서 그 때마다 평생 감사해도 부족한 주님의 은혜 중에서도 특



히 군복무 시절 기억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니라”이다.

군복무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보병편성의 가장 작은 단위인 ‘분대(Squad)’의 책임자, ‘분대장’이 되어봤을 것이다. 분대는 약 8-10명의 병사들로 구성되어있어 그들을 리드

하는 분대장의 책임은 막중하다. 따라서, 그 분대장이 되기 위해선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필자는 부대 사정상 특별히 그 규모가 큰, 일명 ‘전투력 측정 시험’이라는, 2군 부대의 약 200-300명 되는 우수한 병사들이 함께 이런저런 측정을 받는 그런 테스트에 참가를 하게 되었다.

여러가지 군 무기에 관한 지식, 병사들을 통솔하는 능력, 전술구사 능력 등을 시험하는데 이런 것들에 통달한 전문 특수부대원, 수색대원, 경호원들 사이에서 일개 경계병(가끔씩 수색도 하는)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테스트는 약 1주일에 걸쳐서 시행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의 공부들로는 저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마치 초등학생이 1주일 공부하고 대학원생들의 시험을 본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였다.

하지만 규율과 계급을 벗어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특히나 더 불가능했던 ‘군(軍)’이란 곳에서, 마침 군복무 기간 놀랍게 역사해주시는 임마누엘 하나

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있었던 필자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더욱 더 하나님 품으로 가까이 다가가고자 했다.

테스트를 치루면서 대학총교회 시절, 오행열 목사님께서 자신이 예전에 공부하기 전, 늘 성경책을 먼저 펴고 말씀을 묵상한 후에 공부를 시작했다며 해주시던

말씀이 기억났다.

어찌보면 자칫 미신적으로 빠질 수 있을만한 행동이었지만, 당시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은 그것 밖에 없었다.

내 앞에 보이는 그들과 나 사이의 이미 벌어진 현격한 차이는 더욱더 초심으로 돌아가게 했고, 성경전이 팽팽했던 그 와중에서도 늘 잊지 않고 QT하고 기도하며, 가져갔던 문제집들도 꼼꼼히 보고, 특수부대원들의 문제집도 겨우 빌려서 잠깐 보기도 하며 모든 일에 성실하게 행동하려 했다.



필자와 같이 테스트를 치루던 병사들은 특별히 자기가 무슨 어디어디 특수부대 출신이라며 다른 병사들을 무시하고, 나 1등 할거라는 등, 모르는 것이 없어서 걱



정이라는 등, 잘난 척으로 뚝뚝 뭉친 녀석들이 많았다.

1주일이 지나 모든 측정을 마치고 마지막 성적 발표 날, 역시나 그 녀석들은 아직 나오지도 않은 성적에 자신들의 높은 순위를 예상하며 떠들어 댔고, 자신만만해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내 이름은 200-300명이나되는 보다 뛰어난 병사들보다 앞서 호명되었으며, 표창을 받고 상을 얻었다. 기껏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놓고 이런 말을 하기는 좀 뭐하지만, 너무나 통쾌했다.

내가 높은 순위를 차지했음에 기뻐했고, 휴가를 받아 여자친구와 연락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환호했으며, 테스트 기간 내내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신 그 은혜에 감동을 했다. 장난이 조금은 곁들여져 조금 가벼워졌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모든 지식의 근본이었으며, 그 이름은 세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었다.

내 부족함 속에서도 말씀을 증거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깊숙히 느꼈기에 지금도 잠언 1장 7절의 이 말씀은 내게 진리 중에서도 진리이다. 그래서 난 벌써, 우리 가정의 가훈을 만들어 놓았다. “敬畏主 是

是為智慧之本”(경외주, 시위지혜지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나의 친구들 뿐만 아니라, 대학총교회의 모든 성도님들도 이렇게, 어찌 보면 미련스럽게 주만 바라보고 기대하는 삶을 통해 더욱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SL)



유타 대학촌 소식

12월 선교부소식

1. Sundance 목장에서 새롭게 섬기는 한국 천사의 집(방동식 목사님)에 관한 소개를 12월 28일에 해 주시겠습니까. (천사의 집 홈페이지: <http://cafe.daum.net/1004bds>)
2. Rescue Mission of Salt Lake 에서 blue container을 가져왔습니다. 입지 않는 옷이 있으시면 가져오셔서 plastic bag에 넣어 묶은 후 blue container에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Salt Lake Mission에서 Christmas(12/25)맞아 8:00Am~5:00Pm까지 8,000명에게 음식을 serving 한다고 합니다. 12/15일부터 Volunteer를 모집하는데 시간이 정해지는 대로 목사님께 말씀 드리고 Board에 Sign-up sheet를 준비하겠습니다.
4. 선교부 특별기도 요청 -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북한은 북한주민의 약 40%인 870만 명이 약 80만ton에 달하는 긴급 식량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취약 계층은 주로 어린이나 임산부, 수유여성 그리고 노인들이라고 세계식량계획(WFP)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5. 선교부 추천CD: 세상을 이겨라! 요한일서 5:4-5 송 상철 목사님. 믿음의 거부 John Rockefeller

12월 교회기도제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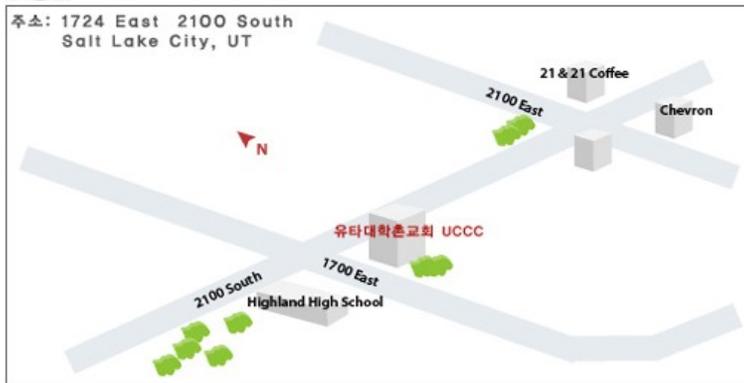
1.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하셨는지를 생각하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새롭게 결단하고 바뀌어 가기를
2.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싸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기를
3. 기도하며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해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하기를

SoulLake 편집 후기

앞서 2009년도를 준비하는 12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K)

*p.s 대학촌교회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 중이라, 임시게시판이 "ucccutah.tistory.com" 운영 중입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대학촌교회 오시는 길



예배 안내

구분	예배	시간	구분	예배	시간
주일	1부 예배	09:50 AM	주중	08' 새벽예배	월-금 06:00 AM 토 07:00 AM
	2부 예배	11:00 AM		금요찬양예배	금 07:00 PM
	Youth	09:30 AM		청년부 예배	금 08:20 PM
	주일학교	11:00 AM		목자훈련	목 06:30 PM
	한국학교	01:30 PM		Provo 제자훈련	화 07:00 PM
	제자훈련	02:30 PM		캠퍼스 730 Live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07:30 PM

발행인: 김철홍 목사 / 편집인: 최희석, 송강 / 발행일: 2008년 12월 21일
유타대학촌교회 회지복간 제 57호

1724 E. 2100 S. Salt Lake City, Utah 84106

전화: 801-467-4337 (교회), 801-943-3904 (담임목사관) / Email: chulhongkim@ucccutah.org

본 유타대학촌교회 월간소식지는 교회 홈페이지 임시게시판(<http://ucccutah.tistory.com>)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